

## <교환학생 수기(일본권)>

정고은

저는 2010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일본 에히메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약 10개월 동안, 알차게 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파견 학생들에게 꼭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일본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한국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공부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일본은, 책에서 나온 문법과 일상 생활에서 쓰는 회화체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었던 에히메현은 '이요벤'이라고 하는 에히메현 만의 고유한 사투리를 쓰는 곳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만 공부하고 유학을 온 제가, 사투리까지 알아 듣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 날,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였습니다.

천만다행한 것은, 담당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소통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알아 들을 수도 없는 시간들이 계속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갔던 첫 학기(2010년 2학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본어 수업만을 들었습니다. 저 외에도,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친절하고 쉽게 일본어를 가르쳐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즐겁게 일본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어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리고 한자, 이렇게 세가지를 섞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세가지를 모두 공부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특히 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본 한자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어 수업만으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일본어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 전공수업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 갈 것 같은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 한 것보다 일본어는 놀라운 속도로 늘었고, 2011년 1학기(전기), 전공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어 수업을 들은 것 역시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만, 역시 일본어 실력이 단시간 동안 빠르게 늘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부족하고 느리지만 일본어로만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굉장히 배려해준 덕에,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천천히 쉬운 일본말로 설명해주는 사람들 덕에 천천히 일본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어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어가 유창한 파견 학생들 역시, 초기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말하는 일본 사람들의 어투도 문제였지만, 혹여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긴장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고 싶어 영어를 공부했던 제가, 뜻밖의 기회로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며 일본어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어학이라는 것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실전에서 익혀야 가장 빨리 늘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수업을 듣는 문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족하지만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몇 십 명씩, 혹은 몇 백 명씩 같이 듣는 수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즉시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폐였으며, 질문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업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표시 해 두었다가 수업이 끝난 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쭙보았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칠판에 필기해 주신 내용에서 모르는 한자가 나오는 경우,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필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와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친구들은, 제가 모르는 한자가 나오는 경우 부탁하면, 다시 한번 한자를 써 줘주며 과제며 쪽지시험, 레포트, 시험, 휴강 등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어렵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에 관해서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모든 수업마다 노트를 준비해서, 수업에서 받았던 프린트를 모두 한국말로 번역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어떤 수업은 책에 있는 단원을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일본어 공부하는 겸, 확실히 전공 지식을 쌓는 다고 생각하며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번역하여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모범생들이나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며 비웃었을 방법으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해 가지 않으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공부 해 갔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포기 하지 않고 레포트,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학부 특수지원교육학과 청각장애코스의 교환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과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더군다나 일본어도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특유의 깍듯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져 사이를 좁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일본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누구보다 즐겁고 유쾌한 친구들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인인 저에게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일본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면서, 일본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일본에 대해 더 큰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면서, 일본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문자 그대로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웃고, 편안한 자리에서 제 일본어 실력을 더 많이 늘 수 있었고, 또한 일본 친구들과의 우정도 두터워 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자리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다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본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렇게 친해진 일본 사람들이 제 일본에서의 생활에 상당한 부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친해지지 않았다면, 전 한국의 유학생들과의 추억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10개월. 초반에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힘들었지만 즐겁게 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버텼다는 생각이었지만, 이 수기를 쓰면서 10개월 동안의 유학생생활을 정리한 지금, 너무나 많이 배웠고 느꼈으며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제 수기가 앞으로 일본에서 유학 할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